

22일 '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' 발족 ... 지자체 소통·협력 기반 노선 설계

- 강남·명동 등 주요 도심의 혼잡 완화 위한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협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, 이하 대광위)는 「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」를 발족하고, 3월 22일(금) 오후 2시 서울에서 첫 회의*를 개최한다.
 - * (참석)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주재, 서울시·경기도·인천시 광역버스 담당 부서장
 - 이번 협의체는 수도권 광역버스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운행노선 및 정류소 등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.
- 수도권 광역버스는 경기·인천과 서울을 300여 개의 노선에서 작년 평균 하루 약 14,000회 운행하며 약 55만 명의 사람들의 출퇴근과 통학 등에 이용된 필수적인 교통 수단이다.
 - 다만, 광역버스 운행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 환승 인프라가 위치한 일부 도심으로 집중되고 일부 구간에서의 도로 혼잡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.
 - 광역버스는 두 개 이상의 시·도를 운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지자체 간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□ 대광위는 우선 상반기 중 「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」를 중심으로 최근 몇 차례 이슈가 된 강남과 명동 일대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버스 노선과 정류장의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○ 대광위 김배성 광역교통정책국장은 “광역버스 노선의 효과적인 조정 등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,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도 확보해 나갈 것”이라면서,

- “무엇보다도 기존 광역버스 이용객이 노선 조정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하게 분석·검토하고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와 긴밀히 논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배소명 (044-201-5065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황성필 (044-201-5069) |
| | | | 주무관 | 이승현 (044-201-5066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